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 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

송경자 · 김재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s of Body-image Measured by Multi Measurements on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Kyung-ja Song · Jae-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4. 1.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any significant relations among body image, needs for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and some selected clothing behaviors of two age group females using social comparison theory as the research background. The sampling method was a convenient sampling, and the subjects were 56 females aged from 20 to 24 years and 54 females aged from 40 to 49 years. The quasi-experiment and survey were conducted from May 1 to June 30, 2002.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ual body image is more important than measured body size and ideal body size in body image. Apart from measurement instrument, people who perceived slim had higher self concept, exhibition and conformity of clothing.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e groups(twenties and forties) in needs for plastic modification, self concepts and clothing behaviors. The younger age group exhibited higher need for modification than the older age group and the younger group also showed higher self concept, higher interests in clothing and fashion, more exhibition tendency and conformity to clothing.

Key words: Body-image,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Clothing behavior; 신체이미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I. 서 론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악하며 알고자 하는 자기지식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기지식 욕구에 따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에서 합의된 미의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하게 된다. 신체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의 기능적인 강건함이

나 아름다움이 단순히 신체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비만함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매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날씬함에 대한 선호로 현대에 와서는 건강미가 있는 날씬함이 추구되고 있다.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왜곡되기 쉬우며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왜곡하여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지각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신의 신체이미지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에 관련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42-821-6823, E-mail: jaesook@cnu.ac.kr

국내에서는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험자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중년 여성들도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신체를 가꾸려는 노력을 하게 되므로 연령층을 40대 주부로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불만족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미용성형욕구를 갖게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성형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일반적인 외과수술 환자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이진호 외, 1983), 신체이미지와 성형욕구, 자아개념 및 중요한 자기 표현수단인 의복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20대와 40대 여성들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 이미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을 알아보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비교이론

Festinger(1954)는 자아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실체임을 지적하였다. 물리적 실체란 물질 세계의 속성들인 무게, 거리, 길이 등이며 이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되고, 그 정확성이 타인과의 교류맥락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지식의 중요 원천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비교는 자신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태도, 외양이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욕구를 지니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너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나 자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실제 신체크기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비롯되는 지각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비교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2. 신체이미지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국내의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주로 신체이미지의 중요 구성요인인 신체만족도로 조사하였는데 여러 선행연구(구자명, 이명희, 1994; 김양진, 1992; 송경자, 1999; 임경복, 1997; MacGillivray & Wilson, 1997)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 신체사이즈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서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경자(1999)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심리적 의복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관심이 높았으며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외모를 향상시키고 환자가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가지고도록 하는 것이다.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은 낮은 자아개념과 열등감, 가벼운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였고, 그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주된 동기는 이러한 경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며, 성형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수술결과에 만족한다고 하였다(임숙자 외, 2000; 유영천 외, 1994; 안재훈 외, 1993). 김은주(2001)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로 얼굴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흡입수술, 가슴관련 수술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웃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김순구, 윤학자, 1986; Humphrey et al., 1971). 진효정, 임숙자(199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의복에서는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선재(199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송경자(199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적었으며 동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I)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Fallon & Rozin(1985)의 ST(Silhouette task)는 아주 마른 체형에서 아주 비만인 체형까지 9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실루엣과 이상적인 실루엣을 고르게 한 후 실제와의 일치정도를 보는 방법이다. ST 측정도구는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및 이 둘의 차이로 신체불만족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ST는 피험자들이 쉽게 비교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체형을 계측하지 않으므로 신체 왜곡을 알 수 없으며, 체형 실루엣이 서구적이므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Askevold(1975)의 IMP(Image Marking Procedure)는 피험자들이 벽에 부착되어진 종이 위에 자신의 신체너비를 직접 그려보게 한 후 실제 계측을 통해 피험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체너비와 실제 너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IMP는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는 물론 지각하고 있는 너비와 실제 너비의 차이로 신체 왜곡도 알아볼 수 있으며 측정을 위한 도구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체 둘레는 측정하지 않으며, 이상적인 신체의 크기를 조사하지 않아 신체 불만족 정도를 알 수 없다.

2) 주관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Secord & Jourard(1953)의 신체만족도(Body Cathexis Scale)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24개의 신체부분을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 까지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측정도구이다. 연구목적에 따라 신체부위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험자의 신체에 대한 생각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의류학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Cash(1990)의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는 BSRQ(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를 발전시킨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로, 신체이미지를 변형욕구와 신체 및 자아만족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변형욕구 차원인 외모 변형에 대한 태도 16문항, 체형변형에 대한 태도 14문항, 체중변형에 대한 태도 21문항과 신체 및 자아만족도 차원인 건강 및 외모에 대한 관심 35문항, 자아개념 관련 12문항, 신체만족도 9문항을 포함하는 총 10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MBSRQ는 신체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최근 신체이미지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Kim 등(2001)이 제시한 SBIM(Spider-gram for Body Image Measurement)은 피험자 연령에 맞는 여러 신체 부위의 평균치수가 표시된 방사선상에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신체크기와 이상적인 신체크기를 표시하도록 한 후 실제 크기를 계측하고 비교하는 방법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지각적인 신체이미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신체 왜곡, 신체 불만족 등을 알 수 있으나 신체계 측이 요구되므로 피험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른 신체이미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와 40대 여성으로, 피험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20~24세 여성 56명과 40~49세 여성 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5월~6월로 설문조사와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3. 측정도구의 구성

I)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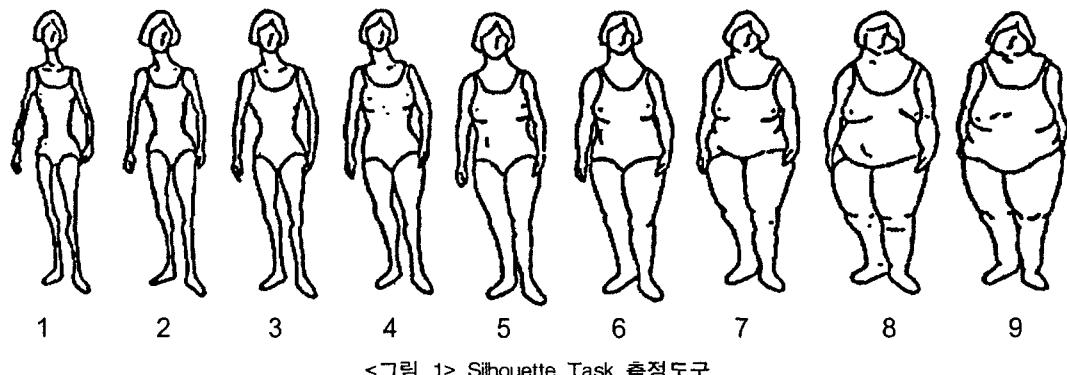
(1)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① ST

Fallon과 Rozin(1985)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신체 실루엣 그림 중에서 여성의 실루엣 그림을 Kaiser(1990)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의 실루엣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자신의 체형과 가장 유사한 실루엣 그림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루엣 그림을 각각 선택하도록 하였다.

② IMP

의류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신체의 전반적인 실루엣을 대표할 수 있는 부위로 얼굴너비, 어깨너비, 허리너비, 엉



<그림 1> Silhouette Task 측정도구

명이너비를 선정하였으며, 벽에 부착된 흰 종이 위에 지각하고 있는 크기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2) 주관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① SBIM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신장(cm), 체중(kg), 가슴둘레(cm), 허리둘레(cm), 복부둘레(cm), 엉덩이둘레(cm), 허벅지둘레(cm), 종아리둘레(cm)를 조사하였다.

② MBSRQ

전문가 집단과 함께 본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 외모 관련 10문항을 발췌하여 7점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③ 신체만족도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김양진, 1996; 이미숙, 2000; 전경란, 2002)를 토대로 하여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본 연구에 적합한 10문항을 7점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2) 성형욕구 측정도구

성형욕구의 측정도구는 IMP에 포함된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선별된 6문항을 7점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3) 자아개념 측정도구

자아개념의 핵심요소가 자아존중감이므로 자아개념의 측정을 위해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송경자(1999)에서 발췌하여 7점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4) 의복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의복행동으로 제시된 의복·유행관심, 과시성, 경제성, 동조성에 관련된 20문항을 선행연구(김양진, 1996; 송경자, 1999; 이미숙, 2000)에서 발췌하여 7점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

SPSS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α 값을 조사한 결과, MBSRQ .6632, 신체만족도 .6903, 성형욕구 .6163, 자아개념 .8563, 의복행동 .8859로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 요인추출을 위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집단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스퀘어 (χ^2)검정,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도구에 따른 신체이미지

1) ST에 의한 신체이미지

(1) 유사체형 그림 선택

자신의 체형과 가장 유사한 그림으로 20대 피험자는

4번(37.5%), 3번(26.8%), 2번(21.4%), 5번(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번 그림을 선택한 피험자는 없었다. 40대 피험자는 3번(33.3%), 4번(31.5%), 5번(20.4%), 2번(7.4%)과 6번(7.4%)의 순으로 선택하여 40대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자신을 더 날씬한 체형으로 지각하는 피험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4번(34.5%), 3번(30.0%), 5번(19%), 2번(14.5%), 6번(3.6%)의 순으로 나타나 자신을 너무 비만하거나 너무 마르지 않은 정상체형이라고 여기는 피험자가 많았다.

(2) 이상적인 체형 그림 선택

이상적인 체형으로 20대 피험자는 3번(55.4%)과 2번(28.6%), 4번(16.1%)을 선택하고, 40대 피험자는 3번(61.6%)과 4번(25.9%), 2번(20.9%) 체형그림을 선택하여 극단적으로 마른 체형인 1번과 비만한 체형에 속하는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선택한 피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마른 체형이 아름답다는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40대 피험자보다 20대 피험자들이 좀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번(58.2%), 2번(20.9%), 4번(20.9%)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택하였다.

(3) 신체 불만족

지각된 자신의 신체 체형그림과 이상적인 체형그림의 차이를 신체 불만족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지각된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피험자의 20.9%였으며, 63.6%의 피험자는 현재의 자신보다 더 마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대는 말라서 불만인 피험자가 14.3%인 반면 40대 피험자는 16.7%로 조사되었으며, 비만이어서 불만인 피험자는 20대와 40대가 각각 35%로 조사되었다.

2) IMP에 의한 신체이미지

피험자 대부분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어깨너비는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머리, 허리, 엉덩이 부위는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계측 크기는 머리너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40대 피험자가 20대 피험자보다 컸으나, 지각된 크기에서는 허리너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40대 피험자가 20대 피험자보다 더 작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T에서 40대 피험자가 20대보다 더 마른 체형그림을 자신과 유사한 체형으로 많이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어깨너비를 제외한 머리너

비, 엉덩이 너비, 허리너비를 두 집단 모두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20대 피험자가 40대 피험자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여 ST에서 40대 피험자가 자신을 좀 더 날씬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3) SBIM에 의한 신체이미지

(1) 지각된 신체이미지

대부분의 피험자가 체중, 허리둘레, 복부둘레, 엉덩이 둘레, 넓적다리 둘레, 장딴지 둘레는 실제보다 작게 왜곡하고 있었으며, 가슴둘레는 실제보다 크게 왜곡하고 있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40대 피험자는 넓적다리 둘레를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20대 피험자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ST, IMP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SBIM 측정도구에 피험자 연령에 맞는 평균치수와 눈금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20대 피험자와 40대 피험자의 이상적인 신체크기는 매우 달랐으며, 20대 피험자는 40대 피험자에 비해 키는 더 크고 그 밖의 모든 신체 부위는 더 작은, 좀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Jacobi & Cash(1994), 이미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 40대 피험자가 이상적인 체형으로 3번 체형그림을 가장 많이 선택한 데 비해 20대 피험자는 좀 더 마른 체형인 2번 체형그림을 가장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택한 ST에서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4) MBSRQ에 의한 신체이미지

(1) MBSRQ의 신체이미지 요인도출

MBSRQ의 신체이미지 요인은 <표 1>과 같이 3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제 1요인은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등의 3문항으로 체중관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제 2요인은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2문항으로 외모관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2문항으로 신체매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MBSRQ 신체이미지

피험자들은 외모관심이나 신체매력 요인보다는 체중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 MBSRQ에 의한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 관심요인에

<표 1> MBSRQ의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요인	문항 내용	고유치	설명력
체중관심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83	30.52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을 쓰게 된다	.82	
	나는 절식이나 단식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	.81	
외모관심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91	24.73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핀다	.85	
신체매력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87	20.45
	나는 신체적 매력이 없다(*)	.81	

(*) 역코딩 문항임

<표 2> 의복행동 측정도구 요인분석

요인	문항 내용	고유치	설명력
의복 유형관심	나는 입어서 기분이 좋은 옷을 자주 입게된다	.85	28.10
	마음에 안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77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관한 기사를 흥미있게 본다	.70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69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는가 하고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	.64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63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62	
	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61	
	나는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60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58	
과시성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77	13.61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이면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한다	.75	
	나는 평범한 옷은 개성이 없어 보여서 안 입는다	.67	
가격 비교려	입어서 멋있게 보이는 옷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산다	.87	12.95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것이 좋다	.83	
동조성	친구들이 새로운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마련하고 싶다	.75	10.25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52	

(*) 역코딩 문항임

서 40대 피험자에 비해 20대 피험자가 외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4.190, p<.001$), 체중 관심과 신체 매력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평균값의 비교에서 체중 관심은 40대 피험자가 높고 신체 매력요인은 20대 피험자가 40대 피험자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대 피험자는 자신의 체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반면 20대 피험자는 외모나 신체적인 매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5) 신체만족도에 의한 신체이미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신체 각 부위마다 보통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신체만

족도를 연령별로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χ^2)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을 때 20대 피험자는 신체만족도가 낮은 피험자와 높은 피험자가 유사한 빈도로 분포되었으나 40대 피험자의 경우엔 신체만족도가 낮은 피험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 행동

1) 의복행동 요인 도출

의복행동은 <표 2>와 같이 4요인으로 구분되었으

며, 제 1요인은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관한 기사를 흥미 있게 본다' 등의 10문항으로 의복·유행관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제 2요인은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이면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한다' 등의 3 문항으로 과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입어서 멋있게 보이는 옷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산다' 등의 2문항으로 가격 비고려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제 4요인은 '친구들이 새로운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마련하고 싶다' 등의 2문항으로 동조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ST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유사 체형 그림 선택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된 유사 체형 그림 번호를 독립변인으로,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성형욕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형지각과 성형욕구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아개념에서는 5번 그림과 자신을 유사하다고 여기는 피험자의 자아개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3.513, p<.05$). 즉,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거나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좀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에서는 의복·유행관심, 가격 비고려, 동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성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3번 그림이나 4번 그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가장 높고 5번 그림을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집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F=4.233, p<.05$) 자신을 마른 체형이나 비만한 체형으로 지각하는 사람보다 보통체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체형그림 선택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된 이상적인 체형 그림 번호를 독립변인으로,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의복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번과 3번 그림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피험자가 의복행동의 과시성($F=6.258, p<.05$)과 동조성($F=4.120, p<.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통체형이나 조금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피험자가 좀 더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하고 동료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체형그림의 번호와 이상적으로 여기는 체형그림의 점수차이를 불만족정도로 보고, 불만족 정도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비만이어서 불만족하는 사람의 성형욕구가 높고, 불만족이 거의 없는 사람은 자아개념이 높고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IMP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 행동

IMP지각치수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지각치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형욕구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자신의 신체너비를 크게 지각하는 집단이 성형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t=2.118, p<.05$), 이는 최근 신체너비가 작은 마른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호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평균값에서는 자신의 신체너비가 작아 날씬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자아개념이 높고 신체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과사성과 동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하고 있는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의 차이를 왜곡으로 보고, 왜곡하는 신체부위에 따라, 또 전체 왜곡의 양,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왜곡의 일관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SBIM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 행동

(1) 지각된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지각된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치수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집단구분을 한 결과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키는 크고 다른 신체부위가 작다고 지각하는 피험자 즉,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자기자신을 좋아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169, p<.05$), 이는 ST에서 자신을 보통이거나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자아개념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IMP에서 자신의 신체너비를 작게 지각하는 사람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의복을 통한 과시 행동($t=-2.068, p<.05$)이나 동료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많이 하는 동조성($t=-2.751, p<.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T에서와 같은 결과로, 실제 자신의 신체 크기보다는 지각하고 있는 크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신체부위에 대해 이상적으로 여기는 크기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적으로 여기는 신체치수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집단구분을 한 결과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 2집단 즉, 키는 크고 다른 신체부위는 작은 체형인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집단이 성형욕구($p<.01$)와 자아개념($p<.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행동에서 의복·유행관심($p<.05$), 동조성($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유행하는 의복에 관심이 높고 동료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ST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5) MBSRQ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MBSRQ로 측정한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 이미지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형욕구에서는 체중과 신체매력에 관심이 높은 제 2집단의 성형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과 신체에 관심이 많을수록 성형을 하고싶은 마음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1$), 자아개념에서는 외모관심이 높은 제 3집단이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의복행동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높은 3집단이 의복이나 유행관심이 가장 높고, 체중관심이나 외모관심이 낮은 집단은 의복이나 유행에도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6) 신체만족도에 따른 MBSRQ 신체이미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신체만족도에 따른 MBSRQ 신체이미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만족도 평균을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MBSRQ 신체이미지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체중 관心得이 높았으며($p<.01$), 신체적인 매력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신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성형욕구가 높았으며, 자아개

<표 3> SBIM의 이상적인 신체크기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N=110)

총속 변인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성형 욕구	1	2.404	1.042	-2.962**
	2	3.066	1.289	
자아 개념	1	4.899	.921	-2.128*
	2	5.269	.901	
의복 행동	의복 유행관심	-.221 .205	1.089 .871	-2.233*
	과시성	-.130 .121	1.026 .969	-1.297
	가격 비고려	.017 -.016	1.110 .896	.168
	동조성	-.345 .320	1.020 .875	-3.613***

제 1집단 : 키는 2집단보다 작고 다른 신체부위는 큰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집단

제 2집단 : 키는 크고 다른 신체부위는 작은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집단

*** $p<.001$, ** $p<.01$, * $p<.05$ 수준에서 유의함

넓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복행동에서는 신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유행이나 외모에 관심이 적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적게 하며 동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MBSRQ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N=110)

종속 변인	신체이미지집단	평균	표준 편차	F
성형 욕구	1	2.363 (B)	.970	6.047**
	2	3.410 (A)	1.724	
	3	2.856 (B)	1.042	
자아 개념	1	4.912 (B)	.814	3.342*
	2	5.006 (B)	.968	
	3	5.399 (A)	.962	
의복 행동	의복 유행관심	1	-.463 (B)	1.014
		2	.247 (A)	1.016
		3	.422 (A)	.738
	과시성	1	-.240	.934
		2	.347	1.131
		3	.140	.952
	가격 비고려	1	-.186	1.061
		2	.147	1.014
		3	.225	.867
	동조성	1	-.104	.974
		2	.122	.687
		3	.114	1.152

제 1집단 : 체중관심, 외모관심이 낮은 집단

제 2집단 : 체중관심과 신체매력에 관심이 높은 집단

제 3집단 : 외모관심이 높은 집단

***p<.001,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5> 신체만족도에 따른 MBSRQ 신체이미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N=110)

종속 변인	신체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 값
MBSRQ 신체이미지	체중 관심	낮은 집단	.268	.962
		높은 집단	-.329	.963
	외모 관심	낮은 집단	.005	.946
		높은 집단	.012	1.072
성형 욕구	신체 매력	낮은 집단	.379	.894
		높은 집단	-.440	.951
		낮은 집단	2.840	1.301
		높은 집단	2.620	1.106
자아 개념		낮은 집단	4.954	.879
		높은 집단	5.259	.965
의복 행동	의복 유행관심	낮은 집단	.125	.975
		높은 집단	-.141	1.029
	과시성	낮은 집단	.086	1.026
		높은 집단	-.080	.974
	가격 비고려	낮은 집단	-.078	1.052
		높은 집단	.085	.951
	동조성	낮은 집단	-.065	.908
		높은 집단	.059	1.107

***p<.001, **p<.01 수준에서 유의함

3. 연령에 따른 신체이미지, 성형욕구, 자아개념, 신체만족도, 의복행동

연령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신체만족도,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형욕구는 20대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이는 20대 피험자가 40대 보다 자신의 신체 외모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성형욕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아개념에서는 20대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이는 20대 피험자가 대학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반면 40대 피험자는 전문직 종사자보다는 가정주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만족도는 20대보다 40대 피험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여성이 40대보다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같은 연령층의 모델이나 배우 등의 미디어 이미지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크기 때문에 보인다.

의복행동의 의복·유행관심, 과시성, 동조성은 20대가 높아 유행하는 의복에 관심이 높고($p<.05$),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더 많이 하며 또래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1$), 40대는 의복구매시 가격보다는 어울림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인 ST, IMP 및 SBIM을 시험한 결과 지각된 신체이미지는 세 가지 측정도구 모두 측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ST와 IMP의 지각된 신체이미지는 완전하게 일치하는데 비해 SBIM의 지각된 신체이미지는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ST와 IMP가 막연하게 자신의 신체 지각을 측정하는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SBIM은 선분상에 눈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사실에 근접한 신체지각이 측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 계측은 IMP, SBIM으로 가능하였으나, ST는 측정도구의 특성상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계측된 신체이미지 측정은 불가능한 측정도구이므로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시 연구목적에 맞는 측정도구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둘째, 피험자들의 신체 이미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라서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보통이거나 마른 체형으로 지각한 사람의 자아개념이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6> 연령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신체만족도, 의복행동

(N=110)

종속 변인	연령	평균	표준 편차	t
성형 욕구	20대	3.000	1.307	2.388*
	40대	2.459	1.049	
자아 개념	20대	5.276	.900	2.256*
	40대	4.885	.917	
신체만족도	20대	3.318	.758	-.040
	40대	3.324	.873	
의복 행동	의복 유행관심	.188 -.210	.917 1.055	2.076*
	과시성	.073 -.082	1.006 .997	
	가격 비고려	-.006 .007	.892 1.118	-.064
	동조성	.303 -.339	.844 1.059	3.467**

** $p<.01$, * $p<.05$ 수준에서 유의함

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형의 변화나 수정뿐만 아니라 의복과 패션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신체이미지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실제 자신의 신체크기보다는 지각된 크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마른 체형으로 지각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성이 높고, 자신의 신체지각에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는 40대보다 자신을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와 신체매력에 관심이 많으며, 자아개념이 높고, 의복유행관심, 의복을 통한 과시성,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20대보다 체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지지하였다. 40대 피험자의 평균 체중이 20대 피험자보다 커 움에도 많은 20대 피험자는 자신을 과다 체중으로 여기고 체중에 불만족하였으며, 허리를 포함한 둘레부위 대해서도 40대 피험자가 20대 피험자보다 커운이나 많은 20대 피험자가 오히려 불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자신과 비슷한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하기 때문이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고, 자신과 너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여 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지지하였다.

신체이미지 연구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측정도구의 비교를 기초하여, 각 연구에 적합한 측정도구 선택으로 더욱 심도있는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연구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거나 연령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좀 더 다양한 측정도구에 대한 비교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구자명, 이명희. (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여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양진.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진. (1996). 유행의복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자. (1999).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재훈, 김용운, 백무현, 김승홍, 민대홍, 이영식, 이철원. (1993). 성형수술환자들의 정신 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I). *대한성형학회지*, 20, 945.
- 유영천, 이두형, 장충현. (1994).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태도조사(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1(3), 452-459.
-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재. (1991). 한, 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73-187.
- 이진호, 김용배, 방유현, 박종섭, 노명래. (1983).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고찰.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0권, 279.
- 임경복. (1997).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2), 195-205.
- 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효정. (2000). 바디이미지. 교문사.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효정, 임숙자. (1997). 여대생 집단과 유형전문가 집단의 의복 동조성에 관한 연구 -자아개념변인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3), 47-56.
- Askevold, R. (1975). Measuring body image: Preliminary report on a new method.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26, 71-77.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Thomson, J. K.). Pergamon Press.
- Fallon, A. E. & Rozin, P. (1985). Short report: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desirable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02-10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Humphrey, C., Klassen, M. &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 concept of adolesc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 Jacobi, L. & Cash, T. 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

- 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th ed). New York: Macmillan.
- Kim, J. S., Koh, A. R., Lee, S. H. & Oh, K. Y. (2001). *Body image : Holistic perspective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 to apparel industry*. 2001 Seoul KSCT/ITAA Joint World Conference PROCEEDINGS, 58-59.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43-50.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